일본 식품 안전 보장 확립을 위한 대책*

허 정 회, 노 호 영, 백 선 혜

7월호에서는 일본의 2009년 농림수산예산 중에서 식품 안전 보장의 확립을 위한 국내 식품 공급력 강화 정책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번 호에서는 국내 식품 공급력 강화 정책 이외에 식품 안전보장의 확립을 위한 여러 정책에 대해 소개한다.

1. 세계의 식량상황에 대응한 전략적 대책

식량 상황에 관한 정보의 파악 · 제공 체제의 강화

세계적으로 곡물 등의 가격이 상승하고, 수출국에 의한 수출 규제의 가격상승에 더욱 박차를 가해 올해 전반에는 세계적인 식량 사정이 위기 상황을 맞이했다.

국제적인 식량 수급은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 바이오연료 작물의 수요확대 등의 다양한 요인에 의해 복합적으로 영향을 받아 재작년 이래 급격하게 핍박한 경향으로 전환되고 있다. 세계적으로 곡물 등의 가격이 상승하고, 수출국에 의한 수출 규제가 가격상승에 더욱 박차를 가했다. 이로 인해 식량 수입국에서는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하여 식량을 둘러싼 폭동과 항의행동이 빈발하는 등, 2008년 전반에는 세계적인 식량 위기상황을 맞이했다. 현재 소맥의 풍작 예측 등으로부터 가격은 최고치에 비하여 큰 폭으로 저하됐지만, 여전히 재작년 가을 무렵과 비교하여 높은 수준에 있다. 이로 인해 OECD-FAO의 중장기 전망도 종래와 비교하여 높은 수준의 가격이 지속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

* 본 내용은 일본 농림수산성의 2009년 예산에 관한 자료를 참고하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허정회 연구원, 노호영 연구원, 백선혜 연구원이 발췌·번역하였다.(berliner@krei.re.kr, 02-3299-4195)

따라서 식량 상황에 관한 정보의 파악・제공 체제의 강화를 위한 정책목표로 첫째, 국제적인 식량 상황 변화를 정확하게 파악하며 국내 식량안정공급에의 영향에 대해서 농림수산성이 독자적인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국내 식량안전보장의 확립에 공헌한다. 둘째, 국제적인 식품수급에 관하여 정확한 정보를 국민에게 적시에 제공하여, 민간에 의한 해외식량조달의 원활화를 도모한다. 동시에 국민전체가 인식을 공유함으로써 식량자급률 향상에도 공헌하는 것이다.

이 대책에 대한 주요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살펴볼 수 있다.

첫째, 새로운 정보수집 시스템 구축에 의한 정보 파악이다. 다양한 정보수집 툴(tool)의 확보와 국제식량 상황 변화에 적응 가능한 정보수집, 품목별 국가별 효율적인 정보수집 노하우의 축적을 통해서 농림수산성 내에서의 정보공유를 도모하고 독자적으로 정보를 적시에 시책으로 반영한다.

식량 상황에 관한 정보의 파악·제공 체제의 강화를 위한 주요 내용은 새로운 정보수집 시스템의 구축에 의한 정보 파악, 정보 분석의 다각화·고도화, 효과적인 정보 제공이 있다

둘째, 정보 분석의 다각화·고도화(세계 식품 수급 예측 시스템 사양 개발)이다. 국제적인 초장기 식품수급 예측에 필요한 다양한 연구 성과 수집과 연구자와의 협력 체제를 구축하고, 예측 시스템의 설계에 관한 사양을 작성한다. 본 사양을 활용함에 따라, 장차 다양한 요소에 입각한 초장기 식품수급 예측 시스템이 효율적으로 개발 가능해진다.

셋째, 효과적인 정보 제공이다. 국제적인 식품 수급 전반을 알기 쉬운 자료, 영향요인마다의 상세한 자료, 이용자(정책담당자, 소비자, 민간사업자 등)에 맞는 자료 작성 등을 통해 효과적으로 정보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시책으로의 정확한 반영, 국민전체에의 인식공유, 민간조달의 원활화 등에 공헌한다.

국제협력 등을 통한 세계의 식량 문제 해결에의 공헌

소맥, 옥수수, 대두, 쌀 국제가격은 사상 최고가를 갱신하고 재작년 가을 무렵과 비교해 2배 이상으로 상승하였으며, 아프리카 여러 나라에서 식량 위기 상황에 있어 각지에서 폭동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홋카이도 토야호(洞爺湖) 정상회담에서 중장기적인 대책으로서 5년부터 10년간 아프리카 여러 나라의 주요 식량 생산의 배증(倍增)을 지원한다. 또한 제4회 아프리카 개발회의(TICADⅣ)에서 향후 10년간의 쌀 생산고 배증을 향한 지원을 내세웠다. 이것을 근거로 하여 쌀 생산확대를 향한 자조 노력을 지원하는 아프리카 벼농사 진흥을 위한 공동체[1]와 연대하여 쌀의 생산배증에 대한 지원을 실시한다. 정책목표는 국내 및 세계의 식량안전 보장 확보로 설정하였다.

아프리카에 있어서의 쌀 생산확대를 향한 자조 노력을 지원하는 아프리카 벼농사 진흥을 위한 공동체와 연대하여 쌀의 생산배증에 대한 지원을 실시한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벼농사 생산기술의 확립이다. 이를 위해 1) 아프리카의 「내륙저습지」에서 일본이 가진 기술을 활용하면서, 저비용과 고수익을

1) TICADⅣ을 근거로 하여 설치되어 아프리카에 있어서 쌀 생산 확대를 향한 자조 노력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지원국, 국제기관, 지역기관에 의한 협의그룹.

국제협력 등을 통한 세계의 식량 문제 해결에의 공헌에 대한 주요 내용으로는 벼농사 생산기술의 확립, 토양 비옥도의 개선, 인재 육성의 추진이 있다.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 지속가능한 영농법 등을 실증하고, 그 보급·체계화를 지원한다. 2) 벼농사 등의 보급을 통한 빈곤 삭감에 이바지하기 위해, 국제 연합 세계식량계획(WFP)을 통한 자립적인 논 개발과 영농에 대한 지원을 실시한다. 3) 아프리카 농촌 지역의 빈곤 삭감에 공헌하기 위해, 농업생산에 불가결한 토지·물 자원의 열화(劣化) 방지를 위한 지역특성에 따른 대책과 벼농사의 확대를 위한 농지·관개시설의 정비 등 조건정비에 대해 검토한다. 4) 관개용수의 공급부족 대응으로서 절수 조건에서도 벼의 수량을 확보하기 위해, 국제 벼 연구소(IRRI)를 통한 절수형 재배체계에 적절한 육종 소재의 육성과 절수조건에 적절한 토양·작물관리기술의 개발을 지원한다.

둘째, 토양 비옥도의 개선이다. 이를 위해 1) 아프리카의 소농이 현지에서 염가에 입수 할 수 있는 자재로 토양비옥도를 개선하기 위한 방책을 검토하여 기술 이전·보급을 실시하고, 생산성의 향상을 지원한다. 2) 시비 효율 향상에 따른 안정된 농산물생산과 온실효과가스의 발생억제대책에 공헌하기 위해, 질소 비료에서 생긴 온실효과가스의 발생 등에 관한 국제기관의 연구를 지원한다.

셋째, 인재 육성의 추진이다. 1) 아프리카 여러 나라 등에 대해 일본 농협의 노하우를 이전하여 농업생산성 향상, 농산품의 품질 향상 등을 도모함으로써 빈곤·식량문제의 해결에 몰두한다. 2) 아프리카에서, 남남(南南)협력의 계획을 이용한 인재 육성을 진행시킨다. 또한 발전이 늦은 지역에 대해 중점적인 인식과 기술을 보급한다. 이에 따라 항구적인 식량 생산체제 확립을 목적으로 하여, 정책입안능력의 향상이나 농업기술의 이전을 도모하기 위한 세미나의 개최를 지원한다.

국내 농림수산물 · 식품 수출의 촉진

국내 농림수산물 및 식품 수출의 촉진을 위한 주요내용으로는 품목별 전략적인 수출촉진, 의욕 있는 농림어업자 등에 대한 지원, 일본 음식·일본 식재 등의 해외로의 정보전달이 있다.

농림수산물·식품 수출 확대를 중점 추진하여 수출액을 2013년까지 1조엔 규모로 한다. 이를 위해, 관계부성(府省), 도도부현(都道府縣), 민간단체 등이 참여하는 '농림수산물 등 수출촉진전국협의회'에서 「우리나라 농림수산물·식품의 종합적인 수출전략」을 개정(2008년 6월)한 바, 그에 따라 의욕 있는 농림어업자 등에 대한 지원책을 전개한다.

주요내용으로 첫째, 품목별 전략적인 수출촉진이다. 이를 위해 1) 품목마다의 수출실행 플랜 보급에 충실해야 한다. 이와 함께 다른 농림어업자 등에게 표본이 되는 선진적인 대책의 확립을 통해, 농림어업자 등의 수출대책을 강화하는 것이다. 2) 품종을 식별하기 위한 DNA 분석기술 개발 지원을 통해, 우리나라 오리지널 품종을 보호하고 수출촉진을 도모한다.

둘째, 의욕 있는 농림어업자 등에 대한 지원이다. 1) 명확한 목표를 설정하고 전략적으로 수출에 몰두하려고 하는 사업실시주체가 수출확대 프로젝트를 기획·실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능력을 획득하기 위한 연수회의 실시 등도 지원 대상에 추

가하여 종합적으로 지원한다. 2) 수출에 몰두하는 산지가 직면하는 공통의 과제에 대해서 모델로서 해결책을 제시한다. 동시에 같은 형태의 과제를 포함하는 기타 지역에 보급하는 대책을 지원한다. 3) 해외 전시·상담 장소의 제공과 해외 고급 백화점 등의 안테나 샵[2] 설치를 통해 농림어업자 등의 판로 창출·확대를 지원한다. 4) 국내에 있어서 전시·상담회 장소와 정보수집 장소제공 등에서 농림어업자 등이 국내외의 바이어와 수출 선구자 등으로부터 가치 있는 수출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5) 집하지에 있어서 농산물 수출검사 실시를 지속적으로 강화한다. 동시에 수출산지에 대한 상대국의 병해충 검역조치에 관한 설명회 등을 통해 식물검역에 대한 조언 및 지도를 강화한다.

셋째, 일본 음식·식재(食材) 정보의 해외 홍보이다. 1) 외국인 오피니언 리더 등에게 제철에 생산된 고품질 일본 음식·식재 등을 제공하는 「WASHOKU-Try Japan's Good Food」 사업을 통해 그 매력을 해외에 널리 홍보한다. 2) 해외 일본 음식 우량점의 조사, 현지에 있어서 우량점 기준의 책정·보급, 현지 조직에 의한 정보수집 등을 지원함에 따라 해외에 있어서 일본 음식의 신뢰성을 높이고 팬(fan)을 확보한다.

2. 일본 농업 체질강화에 따른 식량 공급력 확보

의욕과 능력이 있는 후계자의 육성

이 대책의 주요 목적은 논·밭농사 경영 소득 안정정책(품목횡단적경영안정대책)을 통해 시정촌(市町村) 특인제도(特認制度)의 창설, 신청수속의 간소화, 교부금 지불시기를 앞당기는 등 개선내용을 착실히 추진하는 것이다. 또한 기업적인 농업경영을 목표로 한 경영전개 대책의 지원, 경영 법인화 촉진, 취락영농 발전단계에 따른 치밀한 지원 등을 실시한다.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논·밭농사 경영소득안정대책의 착실한 추진이다. 논농사 및 대규모 밭농사를 중심으로, 토지 이용형 농업 후계자를 생산조건 불리보정대책(판매수입에서는 조달할 수 없는 생산비용의 보전) 및 수입감소영향완화대책(판매수입의 감소에 대한 보전)에 의해 지원한다. 그리고 고령자와 소규모 농가라 하더라도 면적·소득 특례와 시정촌(市町村) 특인을 활용하거나 취락영농조직에 참가함에 따라 가입 가능하고, 그 내용을 현장에 주지시키면서 착실히 추진한다.

둘째, 기업적인 농업경영을 목표로 한 경영전개 대책에의 지원이다. 기업적인 농업경영을 목표로 하여 기존 또는 신설 농업 법인이 지역 농업인, 식품 제조회사 등과 다양한 네트워크를 형성한다. 이를 통해 농업계에 있어서 「새로운 경영전개의

2) 역주: 소비자 동향 또는 신상품의 시험 매매 등 소비자의 수요 정보 수집을 목적으로 하는 제조회사나 도매상의 직영점.

의욕과 능력이 있는 후계자의 육성에 대한 주요 내용으로는 논·밭농사 경영소득 안정대책의 착실한 추진, 기업적인 농업경영을 목표로 한 경영전개 대책에의 지원, 후계자 경영재생과 후계자로의 경영자원의 원활한 승계 지원, 후계자 육성·확보지원대책의 충실히 하는 것이 있다.

형태」를 확립하는 대책 등을 지원한다.

셋째, 후계자 경영재생과 경영자원의 원활한 승계 지원이다. 이를 위해 농업재생위원회를 통한 전국단위의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의 전문가로 구성된 지원팀을 구성하여 농업재생위원회의 설치촉진과 기능강화를 도모한다. 또한 농지보유합리화법인이 농업재생위원회와 연계하여 농지 등의 적정한 구입가격 조정 등의 대책을 추진한다. 또한 경영곤란에 빠진 농업인의 농지 등이 원활히 담당자에게 승계되도록 한다.

넷째, 후계자 육성·확보 지원대책이다. 후계자 육성종합지원협의회에 의한 경영진단·지도활동 지원책을 일체적으로 실시하여 적절한 경영관리를 통한 후계자의 경영개선을 추진한다. 그리고 후계자의 법인화를 촉진하기 위해 법인화를 통해 농업용 기계 등을 도입하는 경우의 임대료를 조성한다.

또한 촌락영농의 발전단계에 따른 치밀한 지원, 융자에서 농업기계·시설 등을 도입하는 경우의 자기부담부분의 경감조치, 슈퍼(super) L자금 등의 무이자화 등을 계속하여 실시한다.

식량의 생산기반인 농지의 확보 및 효율적 이용 촉진

세계 식량사정이 크게 변화하고 있는 가운데 국민에게 안정적으로 식량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인 식량생산 기반인 농지를 확보하고 최대한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식량 생산기반인 농지의 확보 및 효율적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2008년 12월에 결정, 공표한 「농지개혁 플랜」에 근거해 농정정책 개혁을 순차적으로 구체화한다. 또한 위임, 대리 등의 방식으로 농지를 규모화 하는 실질적인 활동과 함께 농지정보 공유 등을 추진한다. 세계 식량사정이 크게 변화하고 있는 가운데 국민에게 안정적으로 식량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국내의 식량공급능력 강화가 필요하다. 따라서 가장 기본적인 식량생산 기반인 농지를 확보하고 최대한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책목표는 담당자가 경영하는 농지 중 규모화 추진 비율을 2015년까지 70% 정도로 실현하는 것이다.

주요내용으로 첫째, 농지를 확보해 최대한 이용하는 지역의 활동 추진이다. 농지를 확보해 최대한 이용하기 위해 지역의 농지 인수자 상황에 따라서 특정농업법인 등에 의한 경작 포기농지 등의 인수, 시정촌 농지확보합리화 법인 등에 의한 농지보전관리, 위임, 대리 등의 방식으로 농지를 규모화하는 실질적인 활동 등을 추진한다.

둘째, 농지정보 공유화이다. 2009년까지 농지정보도(농지정보를 수록한 그림 혹은 지도)의 기반을 정비하고 이것에 농지 소유와 이용 상황 등에 관한 정보를 추가하는 것이다. 이를 통하여 시정촌 단위에서 관계기관이 공통으로 관련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임대농지 및 임차료 등에 관한 정보에 대해서 신규참여자가 전국 어디서라도 검색할 수 있는 체제를 정비한다.

셋째, 지역 미거주 지주 실태 및 의향 확인이다. 경작 포기농지 해소의 일환으로

농지의 효율적인 이용에 방해가 되고 있는 부재촌(지역 미거주) 지주 등의 실태 파악, 농지 소유자 등의 향후 경영의향 확인 등을 실시한다.

식품 공급 비용의 감축

이 대책의 목적은 농업생산성과 소득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생산과 유통 양면에 걸쳐 원가감축을 위한 활동을 착실히 추진하여 식량 공급원가를 향후 5년간 20% 감축하는 것이다.

주요 내용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생산원가 감축을 위한 활동이다. 이를 위해 1) 농업기계 임대 서비스를 통해 생산원가 감축을 도모하기 위한 임대 서비스의 가이드라인 제시, 임대하는 고성능 농업기계의 정비 등 임대 사업 확립을 위한 활동을 지원한다. 2) 원가감축에 도움이 되는 농업기계 실용화를 위한 연구개발을 추진한다. 3) 신기술 등의 도입과 미활용 노동력, 자본의 활용 등을 통해 혁신적인 영농모델의 구축 및 보급을 추진한다. 4) 집출하저장시설 등의 공동이용 시설과 작업용 기계정비로 농업생산의 동력화를 도모, 생산원가 삭감 등으로 산지 경쟁력강화를 도모한다. 5) 어선어업 개선추진 집중프로젝트 실시 등으로 에너지 절약과 수익성 중시의 조업, 생산체제로의 전환을 촉진한다. 또한 국제경쟁력이 있고 엄격한 경영환경에서도 조업할 수 있는 어업경영체로의 전환을 도모한다.

둘째, 유통원가 감축을 위한 활동이다. 이를 위해 1) 식품유통분야에서 공동배송과 수발주 서류 통일화 등을 추진하면서 문제점 조사, 분석과 해결방법의 검토를 지원한다. 2) 작업원가 삭감과 선도, 품질유지에 효과가 있는 '재사용(화수용) 용기'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회수, 재이용 등의 관리시스템 구축을 지원한다. 3) 식품 소매업에서 가공폐기 손실의 감축 등 경영원가를 감축시키기 위한 새로운 활동의 실증, 보급을 실시한다. 동시에 산지와 생산공정, 조리방법 등 상품정보에 대한 대면판매를 통해 소비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능력을 향상시키는 활동을 지원한다. 4) 도매시장 재편과 시장기능 활성화에 도움을 주는 시설 정비, 생산자와 식품산업 등의 실수요자가 폭넓게 연대하고 농축산물 등을 효율적으로 배송, 판매하기 위한 가공, 유통 거점시설의 정비 등을 수행한다. 5) 산지와 소매업자 등의 실수요자간 직접거래를 지원한다.

식품 공급 비용의 감축을 위한 주요내용으로는 생산원가 감축을 위한 활동, 유통원가 감축을 위한 활동이 있다.

농업용수의 안정적 공급 및 확보

기존 저수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 농업수리시설의 정비, 개선 등을 적절하게 실시한다. 이를 통해 안정적인 용수공급기능을 확보하면서 영농후계자의 농지집적에도 공헌하고 식량 공급력의 강화를 도모한다.

농업용수의 안정적 공급 및 확보를 위한 주요내용으로는 영농후계자의 농지집적에 맞는 안정적인 용수공급기능의 확보, 최소한의 비용으로 농업수리시설기능 확보, 농업수리시설의 최적 정비·개선이 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영농후계자의 농지집적에 맞는 안정적인 용수공급기능의 확보이다. 관개 배수사업 등에 따라 기간적인 농업수리시설을 정비구역 내에 두고 말단의 농업수리시설의 경우는 일체적인 정비를 통해 영농후계자의 농지집적을 촉진한다.

둘째, 최소한의 비용으로 농업수리시설기능을 확보한다. 농업수리시설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보전하기 위해 저수 관리를 도모하고 기능진단을 기초로 보전대책을 실시한다.

셋째, 농업수리시설의 최적 정비·개선이다. 관개 배수사업에 따라 기간적인 농업수리시설의 정비·개선 등을 행한다.

정책의 전개를 뒷받침하는 농림수산통계의 실시

조사업무에 대하여 최대한 효율화를 도모하면서 중요시책의 추진에 필요한 통계조사를 착실히 실시한다. 이로 인한 식량 공급력의 유지 및 향상을 위해 강구되는 농림수산정책의 기초 통계조사를 국가의 책임 하에 실시하고 대대적으로 일반에게도 제공한다.

정책의 전개를 뒷받침하는 농림수산통계의 실시를 위한 주요내용으로는 아웃소싱 및 IT화를 통해 조사업무의 효율화 추진, 농정상의 중용시책의 추진에 불가결한 통계 데이터의 파악, 농림수산정책의 기초 인프라로써의 통계 데이터 정비가 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아웃소싱 및 IT화를 통한 조사업무의 효율화 추진이다. 1) 2008년도의 3가지 조사 도입을 유지하며, 시장화테스트 2가지 조사를 추가한다. 2) 아웃소싱에 동반되는 조사오차 확대 등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간조사원의 육성에 관한 연수를 충실히 수행한다. 3) IT의 활용 등을 통한 조사의 효율화로써 농가경영에 관한 데이터 수집시 경영관리 소프트 활용, 청색신고데이터의 활용을 통한 우편조사화의 추진 등을 시행한다.

둘째, 농정상의 주요시책 추진에 불가결한 통계 데이터 파악이다. 쌀 정책개혁이나 논 및 전작경영소득안정대책 등의 농정상의 중요시책의 추진 또는 국가가 행하는 재정지출의 근거가 되는 데이터를 파악한다. 1) 쌀 정책 관련 재배면적 및 수량에 대하여 국가의 통계치와 생산현장의 차이를 해소해야 하고, 생산통계조사 실시에 적절하게 대응한다. 특히, 벼 재배면적의 괴리를 해소하기 위해 한정된 인력을 중점화하면서 지역논협의회와 연대한 실측조사를 실시한다. 2) 논 및 전작경영소득안정대책 등에 관련한 시책의 기초가 되는 영농후계자나 집락영농의 경영실태 및 생산비용의 상황 등을 보다 신속하고 자세하게 파악하기 위해 농업경영통계를 착실하게 실시한다.

셋째, 농림수산정책의 기초 인프라로써의 통계 데이터 정비이다. 농림업의 생산 및 취업구조나 농산촌지역의 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정책의 기획 및 입안에 관한 기초자료를 정비한다. 이를 위해 5년마다 전체 경영체를 대상으로 행하는 센서스(2010년 세계 농림업센서스, 조사기일: 2010년 2월)를 실시한다. 식량공급 비용 감축의 액션플랜에 관련하여 식량공급 비용을 파악하는 조사를 실시한다.

3. 농림수산분야에서의 에너지 및 자원 절약화 추진

에너지 절약형 기계 및 설비의 도입이나 효율적인 시비체계의 도입을 통해 자원 절약화 등의 대책을 강구하고 농림어업자의 경영체질 강화를 추진한다.

분야별 대책을 보면 첫째, 농업분야에 대한 대책으로는 1) 원유가격의 변동에 대응하기 위해 에너지 절약형 기술 및 설비나 목질 바이오매스를 이용한 가온설비, 가열펌프 등의 선진적 가온시스템의 도입에 대한 지원을 실시한다. 2) 한층 더 비료비용 절감을 도모하기 위해 시비절감효과가 높은 신기술의 도입 등을 통해 시비체계의 전환을 지원한다.

둘째, 임업분야에 대한 대책으로는 1) 원유가격의 변동에 대응하고 이용하지 않는 목질자원을 바이오매스로 에너지화하기 위해 칩 및 팔레트 등의 생산 및 유통체제의 정비, 바이오매스 발전시설, 공공시설 등의 정비나 목재산업의 체질강화 등을 도모한다. 또한 이를 위해 가공 및 유통의 합리화 등에 이바지하는 설비의 도입 등을 추진한다.

셋째, 어업분야에 대한 대책으로는 1) 에너지, 인력 절약이나 자원수준에 일치하는 어업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휴어·감선 등의 지원을 강화한다. 이와 함께 계속적으로 어선어업의 구조개혁을 진행한다. 이를 통해 한층 더 에너지 절약과 수익성을 중시하는 조업·생산체제로의 전환을 추진한다. 2) 산지판매력의 강화, 연료비용의 절감에 도움이 되는 시설(연료탱크, 선박급전시설 등)의 정비나 기존시설의 개축 등을 통해 어업의 수익강화를 촉진한다.

넷째, 기타 관련대책으로는 1) 에너지 절약형 농업기구나 어로기구 등의 개발, 화학비료의 감축 등을 통한 자원 절약형 농업확립을 위한 기술개발을 실시한다. 2) 화석연료를 대체하는 바이오연료나 식품 잔품을 이용한 사료, 가축배설물에 의한 퇴비 등 바이오매스의 활용을 추진한다. 3) 농업수리시설을 이용한 소수력발전시설의 신설 등을 통해 토지개량시설의 유지관리비 절감이나 화석연료에 의한 에너지 절감을 도모한다.

농림수산분야에서의 에너지 및 자원 절약화 추진을 위해 에너지 절약형 기계 및 설비의 도입이나 효율적인 시비체계의 도입을 통해 자원절약화 등의 대책을 강구하고 농림어업자의 경영체질 강화를 추진한다.

4. 식품안전·소비자 신뢰확보·식생활 충실을 도모하기 위한 시책 전개

식품안전과 소비자의 신뢰확보를 위한 대책

크게 식품의 안전확보, 소비자의 신뢰확보, 동식물 방역대책 추진, 식육(食育)추진으로 나누어 대책을 살펴볼 수 있다.

첫째, 식품의 안전확보이다. 이 대책의 목적은 국산농축수산물의 안전을 확보하

기 위해 특정 유해물질 등의 섭취량이 허용량을 초과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생산현장에서부터 식탁까지 식품의 안전확립에 대한 대책을 추진하는 것이다.

식품안전과 소비자의 신뢰확보를 향한 대책은 크게 식품의 안전확보, 소비자의 신뢰확보, 동식물 방역대책 추진, 식육(食育)추진으로 나누어 대책을 살펴볼 수 있다.

주요내용으로는 1) 푸드체인을 대상으로 한 관리 추진을 통해 안전한 국산 농축수산물을 공급한다. 식품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상시예방」의 사고방식으로 생산단계에서부터 소비단계에 이르기까지 푸드체인의 안전성 확보를 추진한다. 2) 국제기준 등의 책정에 적극적인 대응이다. 식품안전, 동물검역에 관한 국제기준을 도입하기 위해 개발도상국에 종합적인 능력향상을 실시하는 「규격 및 통상개발기구」에 의한 식량문제의 해결과 함께 수입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도모한다. 또한 코덱스 등의 국제기준에 국내 실정이 정확하게 반영되도록 관계국과 의견교환 등을 계속적으로 실시한다.

둘째, 소비자의 신뢰확보이다. 정책목적은 감시지도 및 식품 안전에 관한 정보와 상담활동의 충실 및 강화를 통해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다. 또한 식품사업자 등의 주체적 대처를 촉구하여 식품에 대한 신뢰를 향상시키는 것이다.

주요내용으로는 1) 식품표시의 감시지도·계발의 추진이다. 식품표시의 철저한 감시를 위해 식품표시 전문가로부터 표시검사와 농림수산성의 감시지도와의 연대를 강화한다. 또한, 식품사업자에 대한 지도를 위해 적정한 식품표시의 방법 등을 공부할 수 있도록 강좌를 개최한다. 2) 식품 안전에 관한 정보와 상담활동의 충실 및 강화이다. 이를 위해 식품 안전에 관한 시책을 광범위하게 주지하고 소비자 등의 의견을 적절하게 반영시키기 위해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등의 충실·강화를 도모한다. 또한 다양한 상담이나 문의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소비자 상담시스템의 기능강화 등을 도모한다. 3) 식품사업자로부터 식품의 안전이나 소비자의 신뢰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대처촉진이다. 식품의 안전이나 소비자의 신뢰확보를 위한 식품사업자의 의욕적인 대처에 민간 주체가 적정하게 평가·장려하도록 제도를 개선 및 보급한다. 4) 행동규범을 통한 준수 철저이다. 법령준수의 철저를 위해 식품업계에 대한 기업행동규범이나 품질·위생관리 매뉴얼, 사고대응 매뉴얼의 책정 등을 지원한다. 5) HACCP 방법의 도입촉진이다. 중소식품제조업에 대한 HACCP 방법의 보급·정착에 필요한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연수나 HACCP의 인지도 향상을 위해 소비자 단체와 연대한 보급계발 등을 추진한다. 어선, 시장, 가공장 등 수산물 유통의 전 단계를 통해 HACCP 방법도입이나 구미 등에서의 수출을 목표로 수산가공장 등에서의 HACCP 방법도입을 지원한다. 6) 생산이력추적 추진이다. 입하로드와 출하로드의 관계를 알 수 있도록 매번 출하로드 원료의 입하선을 기록하거나 입하로드를 작게 구분한 경우에는 구분에 따라 출하전표의 보존 등 확실하게 상세한 정보를 남긴다. 이를 통해 보다 신속하게 문제가 되는 식품을 여과할 수 있는 효과적인 생산이력추적 모델을 실증한다.

셋째, 동식물 방역대책 추진이다. 대책의 목적은 국내에서의 가축 전염병·양식 수산물의 특정질병 발생 예방·만연 방지 및 해외 전염병의 침입 방지와 국내 미발생 또는 일부지역에서만 존재하는 병해충의 침입·만연 방지와 환경을 배려한 병해충관리체제 구축이다.

주요내용으로는 1) 아시아지역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등에 대한 방역대책 추진이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국경을 넘어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가금류의 단계에서 조기에 박멸하여 신형 인플루엔자의 발생 방지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아시아 각국의 방역대책을 추진한다. 또한 일본 고도의 가축위생기술을 활용하여 구제역, 돼지콜레라 등의 방역체제 강화를 도모한다. 이를 위하여 국제수역사무국의 인증을 받은 일본의 연구기관이 중심이 되어 아시아지역 개발도상국 국가연구기관의 진단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지원을 한다. 2) 해외 가축의 전염성 질병 침입 방지이다. 동물 검역소에서 동물 및 축산물의 수입검사를 실시하여 해외 가축의 전염성 질병 침입을 방지한다. 또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국내 침입 방지를 위하여 발생지역으로부터의 가금류 및 가금육 등의 수입정지조치를 취한다. 또한 철저한 구두바닥 및 차량 소독 등 국내 유입 전 단계의 검사체제를 한층 더 강화하도록 한다. 3) 가축 생산단계에 있어서의 질병의 청정화 등이다. 요네병 및 오제스키병의 청정화나 사망한 소의 검사를 위한 지역별 대처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갈 것이다. 또한 가축경영을 위한 HACCP방식을 추진하여 생산부터 식탁까지 일관된 축산물의 유해미생물 등에 의한 리스크 저감을 도모한다. 4) 인수(人獸) 공통감염증 등에 대한 위기관리 강화이다. 국내 침입이 염려되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등의 전염성질병에 대해 새로운 진단수법의 실용화나 질병의 발생상황 분석, 각 질병의 특성에 따른 방역대응 시뮬레이션을 바탕으로 한 리스크관리조치 검토 등을 실시한다. 그리고 조류인플루엔자나 BSE 등의 인수공통감염증에 대해 검사의 신속화 기술 개발 등 대책기술의 고도화 및 국내 발생 시의 긴급병성검정 기술 등 제압기술 개발을 실시한다. 5) 가축전염병예방법에 근거한 가축방역 실시이다. 가축전염병예방법에 근거하여 지자체에서 실시하는 검사 등에 필요한 경비의 부담, 살처분된 가축에 대한 수당금 지불 등을 실시한다. 방역작업용 기기를 준비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인 가축방역을 추진한다. 6) 수산동물의 전염성질병 발생예방·만연방지이다. 어패류의 전염병 발생예방 및 만연방지를 위해 수산용 의약품 개발촉진 등을 실시한다. 그리고 2009년부터는 아직 국내에 침입하지 않은 병원체에 의한 일본 수산물 위험성 평가에 필요한 감염시험 등을 실시한다. 7) 식물검역체제 강화이다. 작물에 유해한 병해충의 해외 침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식물 검역소에서 검사를 실시하고 이와 함께 국내에서의 중요 병해충 방제를 추진한다. 또한 최신 과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병해충의 위험도를 해석(PRA)하여 일본의 농업에 유해한 병해충을 확실히 검역하기 위한 조치를 강화한다. 또한 수출촉진에 기여하

기 위하여 집하지에서 농산물 수출검사 실시를 계속하여 추진한다. 이와 함께 수출산지에 대한 상대국의 병해충 검역조치에 관한 설명회 등을 통한 식물검역 면에서의 조언·지도를 강화한다. 8) 환경을 배려한 병해충관리체제 구축이다. 병해충이 발생하기 어려운 환경조성이나 물리적인 방제, 천적 등을 최적의 상태로 조합하여 종합적인 병해충·잡초관리(IPM)를 계속하여 추진한다.

넷째, 식육(食育) 추진이다. 대책의 목적은 생산·유통·소비의 각 단계에 있어서 「식사 밸런스 가이드」의 활용을 통해 쌀을 중심으로 한 '일본형 식생활'의 보급·계발을 위한 노력을 촉진한다. 또한 교육농장 확대를 추진하여 우리들의 식생활이 자연의 은혜에 바탕을 두고 있다는 점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심화하는 것이다.

주요내용으로는 1) '식사 밸런스 가이드를 활용한 일본형 식생활'의 보급·계발이다. 식육에 열정을 쏟고 있는 식육선진지역에 있어서 아동·학생 등을 대상으로 한 식생활 개선 및 지역의 식문화 이해 촉진 등을 도모한다. 이를 위하여 관계자간의 연계 하에 '식사 밸런스 가이드를 활용한 일본형 식생활'의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보급·계발 추진활동을 지원한다. 또한 쌀 등의 식량자급률 향상에 기여하는 전략품목 섭취개선을 위한 노력도 함께 추진한다. 2) '교육농장' 추진이다. 점적인 대응만이 이루어지고 있는 교육농장을 전국적으로 폭넓게 지속적으로 전개되도록 한다. 이를 위해 각 지자체 관계자를 대상으로 우수사례 소개 및 관계자 간의 조정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깊은 조언 등을 실시한다. 이와 함께 교육농장의 실시 주체에 대한 연수 실시 또는 운영 매뉴얼 작성 및 참가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교재 작성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식(食과) 농(農)의 연계 심화를 위한 대책

대책의 목적은 학교급식이나 사원식당 등에 지역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거나 양판점 등에서 지역농산물을 판매하는 등 지산지소(地産地消)의 새로운 모델 구축을 지원하는 것이다. 특히 학교급식에서의 지역농산물 사용비율을 2010년까지 30% 이상 높이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였다.

식과 농의 연계 심화를 위한 대책의 주요 내용으로는 지산지소 추진, 국산식료품 등의 소비확대, 농림어업에 관한 체험활동 촉진, 교육농장 추진이 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지산지소 추진이다. 이를 위해 1) 지역 전체적으로 지산지소를 위해 노력하는 종래의 「지산지소 모델타운」과 함께 학교급식이나 사원식당 등에 지역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거나 양판점에서 지역농산물을 판매하는 등의 대책을 지원한다. 2) 농산물직판장을 중심으로 하여 고령자나 소규모 농가 등 다양한 주체가 활약할 수 있는 소량다품목 생산·유통체제를 확립한다. 이를 위해 신규작물 도입, 임대방식의 하우스 도입, 고령자라도 대응할 수 있는 집출하 시스템 구축 등을 지원한다. 3) 강한 농업 만들기 교부금 안에 '특별항목'을 만들어서 지산지소 활동에 필요한 직판장 또는 가공처리시설 등의 정비를 추진하여 각지의 우수한 사례를 지원한다. 4) 지산지소의 코디네이터 육성과 함께 양판점 OB 등의

어드바이저 활용을 통해 지산지소의 중심적인 시설인 직판장의 경영개선 및 고도화를 도모한다.

둘째, 국산식료품의 소비확대이다. 국산식료품 구입 시에 포인트를 부여하는 대책을 실증·보급하여 국산농산식료품 등의 소비를 확대한다. 동시에 포인트의 수집·환원 등을 통해 소비자의 식품·농업에 대한 이해촉진 및 지역 활성화 등 다양한 상승효과를 목적으로 식량자급률 향상을 도모한다.

셋째, 농림어업에 관한 체험활동 촉진이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농산어촌에서 장기 숙박체험활동을 실시하는 '어린이 농산어촌 교류 프로젝트' 등을 실시한다. 이를 통해 식(食)이나 농림수산업과 관련된 다양한 체험활동을 추진하여 국민의 이해와 관심 증진을 도모한다.

넷째, 농장체험을 통하여 식생활이 자연적 요인과 농림어업 생산자 등 많은 노력에 의해 유지되고 있다는 점에 대한 이해를 심화하기 위하여 '교육농장'을 추진한다.

5. 첨단기술이나 지적재산을 활용한 농림수산업의 잠재력 발휘

혁신을 선도하는 기술개발의 가속화

이 대책의 주요 목적은 시설원예, 어업의 에너지·비용 절감 기술, 쌀가루 이용 가속화, 국제적인 식량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개발을 강화하는 것이다.

첫째, 에너지·비용 절감을 도모하는 연구개발이다. 1) LED 등의 빛을 이용한 기술의 고도화를 도모한다. 이를 통해 에너지·비용 절감, 원예작물 등의 품질 안정화, 종래 기술로는 방제가 곤란했던 해충의 방제 등에 기여하는 광 이용 기술 개발을 실시한다. 2) 유기자원의 순환이용기술, 효율적인 비료사용을 통한 양분이용효율이 높은 재배기술을 개발한다. 또한 토양축적양분의 유효이용기술체계 확립을 통해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인 등의 화학비료 사용을 줄여 유기농업 추진에도 기여하는 자원절약형 농업의 생산기술체계를 확립한다.

둘째, 쌀가루 이용을 가속화하는 연구개발이다. 쌀가루 이용을 가속화하기 위해 가공성이 우수한 다수 품종 선정, 쌀가루 빵의 품질열화 방지기술 개발 등 기반기술 개발을 실시한다.

셋째, 국제적인 식량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개발이다. 1) 이제까지 추진해온 벼 게놈연구의 성과를 활용하여 건조·염해 등에 내성을 부여한 벼, 밀의 개발을 추진한다. 2) 우수한 젊은 연구자를 대상으로 국제농업연구기관에서의 연구기회를 제공하여 국제공동연구를 보다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인재를 육성한다.

혁신을 선도하는 기술개발의 가속화를 위해 에너지 절감·자원 절감을 도모하는 연구개발, 쌀가루 이용을 가속화하는 연구개발, 국제적인 식량문제 해결을 향한 연구개발이 있다.

지적재산의 전략적인 창조 · 보호 · 활용

주요 목적은 선진적인 연구개발 성과, 식물 신품종이나 가축 유전 자원, 지역브랜드, 농림수산업의 현장기술·노하우 등의 지적재산을 적절하게 보호하여 적극적으로 창조·활용하는 체제 구축을 신속히 추진토록 하는 것이다. 농림수산업의 산업으로서 잠재적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적재산을 적절하게 보호하여 적극적으로 창조·활용하는 것이 중요한다. 이를 통해 농림수산업·식품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 활성화를 도모한다.

지적재산의 전략적인 창조, 보호, 활용을 위해 농림수산분야의 지적재산권 활용 촉진, 지역브랜드·일본브랜드의 전략적 추진, 일본의 식물 신품종, 브랜드 명칭 등의 보호 강화, 인재육성·보급이 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농림수산분야의 지적재산권 활용 촉진이다. 1) 농림수산지적재산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대학, 독립행정법인연구기관, 공립실험연구기관 간에 정보를 공유하여 보유하고 있는 특허, 육성자권 등의 민간기업에 의한 활용을 촉진한다. 또한 중소영세경영업체에 의한 지적재산 활용·관리의 위탁방안을 검토하여 농림수산현장의 새로운 기술이나 노하우의 활용방법을 제안한다. 2) 연구 성과의 실용화를 위하여 신품종을 활용한 기능성 식품 개발과 함께 농산물에서 유래한 유용한 물질이나 신소재를 활용한 의약·화장품 등 비식품분야의 혁신적인 사업화를 추진한다. 또한 보급조직이 중심이 되어 관계기관이 보급·실용화를 위한 실증작업과 TLO(기술이전기관)에 의한 산업계와의 기술이전을 계속해서 지원한다.

둘째, 지역브랜드·일본브랜드의 전략적 추진이다. 농림수산물·지역식품을 대상으로 하여 '지역브랜드'를 확립할 수 있도록 생산·품질관리, 명칭관리, 마케팅 능력 향상 등의 일관된 대책에 대해 조언을 하는 프로듀서 또는 전문가 초청, 기기 및 시설 정비 등을 지원한다. 또한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해외 모방품 등의 발생상황 조사나 일본의 지명을 이용한 상표의 출원상황 감시 등의 대책에 대해 지원을 실시한다. 이를 통해 일본 농림수산물의 지적재산권에 대한 대책을 강화, 일본브랜드의 해외전개를 촉진한다. 나아가 해외 일식우량점포를 조사하여 현지에서의 우량점포 기준의 책정·보급, 현지조직에 의한 정보수집 등을 지원하여 해외에서의 신뢰성 고취 및 세계적인 팬 확대를 도모한다.

셋째, 일본의 식물 신품종, 브랜드 명칭 등의 보호 강화이다. 1) 일본의 식물 신품종을 해외에서도 적절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동아시아지역에서 공통의 제도적인 기반 구축을 목표로 설정한다. 각국이 공동으로 조화로운 제도의 정비·충실을 추진하기 위하여 설치한 「동아시아 식물 신품종 보호 포럼」을 활용하여 기술협력, 인재육성 등을 추진한다. 2) 일본 고유의 품종보호를 위하여 DNA 품종식별기술 개발, 등록품종의 표본·DNA 보존 등을 실시한다. 3)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우수한 와규(和牛)의 생산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와규 정액 스트로 등의 유통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정액 생산, 사용상황을 집약하는 전국 시스템을 구축한다. 또한 유전자 정보를 바탕으로 한 속도와 다양성에서 우수한 와규 개량기술(유전자 육종)의 조기

실용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유전자 해석 등 연구개발의 촉진 대책을 지원한다. 4) 최근 해외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일본 지명을 이용한 상표 등록문제에 대응하여 출원상황 감시 등의 대책 지원을 실시하여 이해관계자에 의한 적시 및 효과적인 대응을 지원한다. 또한 일본 식품산업의 동아시아지역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지적재산보호·기술유출방지와 관련된 대책을 지원한다.

넷째, 인재육성·보급이다. 보급지도원 및 지방공공단체 직원이나 농협의 영농지도원 등에 대해 지적재산과 관련된 교육을 실시하여 농림수산현장의 지도적 인재를 육성한다.

참고자료

일본 농림수산성, 「2009년도 농림수산예산의 골자」, 2009.